“세계잼버리대회, 한국불교 알린 좋은 기회였죠”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8월 12일 폐막했다. 폭염과 준비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잼버리 현장에서 묵묵하게 활동을 이어간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 성행 스님을 만나 잼버리에 대한 총평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성행 스님은 “이번 잼버리는 한국불교를 더 웅성하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Q. 우여곡절 끝에 잼버리가 마무리됐다. 이번 잼버리에 대해 총평하자면?

A. 환경적으로 문제는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다. 불교계 차원에서는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영지 안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과 K-문화의 접목은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이슈가 됐다. 많은 대원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힐링하고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민족과 종교, 언어 모든 것이 달라도 함께 야영을 통해 만남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다. 준비 부실과 태풍 등으로 체험식으로 변경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초기 대처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큰 성과다. 조계종에서는 사찰을 개방했고 지역사찰과 템플스테이를 연계, 보다 더 웅성하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Q.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이번 잼버리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A. 한국불교가 가진 다양한 문화재를 홍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한국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였다. 108배 챌린지, 예불체험 등 시대에 맞게 재정립된 한국불교문화 체험활동을 준비했고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게 했다. 푸드 하우스 운영에도 신경 썼다. 스카우트 정신을 담고 불교연맹의 정체성을 고려해 건강과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음식을 선보이기 위해 고민했고 떡볶이와 콩국수 등 한국적인 음식들을 선보였다.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맛에 대부분 호기심 있게 반응했다. 대중적인 한국음식들로 준비했어야 하기에 사찰음식에 좀 더 중점을 두지 못한 건 아쉬움이 남는다.

Q. 잼버리 사상 첫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법회 분위기는 어땠나?

A. 8월 6일 종교활동장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103년 세계잼버리대회 사상 첫 수계법회였다. 폭염으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300여 명의 대원들이 불자로서 서원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 자리였기에 의미가 크다.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설립된 지 11년이 됐고 대한민국에서 열린 잼버리에는 첫 참석이었다. 애초 1200여 명이 동참키로 했는데 폭염과 대회 스케줄 변경 등으로 참여 대원이 대폭 줄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스카우트 오계를 함께 읊고 연비체험을 하며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불교의 수계의식을 접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자료를 미리 받아 한 명 한 명에게 법명도 줬다. 수계증은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해 이해를 높였다. 수계 받은 대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계의식은 생소했지만, 오계를 통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계법회 후에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율동단이 대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불교무용과 댄스공연을 펼쳐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낸 점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불교의 화합 정신과 공동체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템플스테이 연계 등 K-문화 접목
세계 대원들 사이서도 큰 이슈돼
잼버리 첫 수계의식 가히 폭발적
한국불교 화합 정신 경험한 시간
프로그램 개발…지도자 양성 등
2년 후 아·태 잼버리 준비 돌입

Q.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잼버리에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갖는 의미는?

A. 조계종에서는 대회 시작 전부터 산문을 열었다. 대회 진행 중 영내 프로그램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북 지역사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영외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고 태풍이 왔을 때는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찰 템플스테이를 더욱 확대하며 조기 퇴영에 따른 대원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종단의 발 빠른 판단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하 부국장 스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대원들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잼버리 활동이 더욱 풍성해졌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공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

Q. 이번 잼버리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아쉬운 점은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을 떠나야 했던 점이 아닐까 싶다. 영지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난관을 이겨내고 서로 화합하는 게 잼버리 정신이다. 때문에 K-문화체험으로 변경된 이번 잼버리는 반쪽짜리 같은 느낌이다. 2년 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열린다. 이번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Q. 불교계가 잼버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A. 창립 30주년이 넘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사찰 불교학생회가 사라지면서 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전 세계 172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스카우트와 접목한다면 어떨까?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세계적 교류도 가능한 활동이다. 스카우트는 청소년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데에는 성인들로 구성된 운영요원(IST)의 역할이 크다. 종단에는 청년대학생 전법단이 있다. 스카우트와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불교 세계화에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한국불교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기대한다.

Q. 스님의 답변 하나하나에 스카우트와 잼버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A. 11년 전,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이 만들어질 때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1000여 명이 모여 조계사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 스카우트 활동을 했기에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잼버리 활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일화(世界一花)와 일치한다. 자연 친화를 강조하는 불교와도 일맥상통하는 활동들이다. 대자연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이타정신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불교와 일치하는 것들이 많으니 애정을 아니 둘 수 없지 않겠나. 특히나 이번 잼버리는 세계인에게 불교문화뿐 아니라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를 줬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한국불교스카우트연맹장으로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A. 2018년부터 연맹장을 맡으며 부처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단 조직 구성에 집중해야한다. 각 지역사찰에 대대를 만들고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지도자와 봉사단을 배출하고자 한다. 지난해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5~6명을 스카우트 상급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번 잼버리 기간 동안 2600명 규모의 서브캠프를 운영하기까지에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

Q. 불교계의 적극적인 활동들로 이번 잼버리는 불자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A.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준비했고, 성과도 있었다. 2년 뒤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잼버리를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연맹만의 특색을 갖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대와 관심을 부탁한다.



103년 잼버리 사상 처음 열린 수계법회 모습. 전세계 300여 대원이 동참, 한국불교의 진수를 맛봤다.



성행 스님의 항건들. 아르헨티나 대원과 교환한 항건(중간)은 잼버리에서 남긴 소중한 선물이다.



2600명 규모의 서브캠프를 운영한 20여 명의 한국불교 스카우트연맹 대원들과 함께.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0월16일 출발~20일 도착(5일 일정)

동참금 | 148만원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으로 이동
▶5일 : 북경–북경공항–인천(대한항공)



인도 성지순례 10일과 11일 출발일정

동참금 | 270만원~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1차) 10월 28일 출발~11월 07일 도착(11일 일정)
▶2차) 11월 18일 출발~11월 28일 도착(11일 일정)
▶3차) 12월 26일 출발~01월 04일 도착(10일 일정)
▶4차) 01월 13일 출발~01월 23일 도착(11일 일정)

아잔타 석굴 포함 인도성지순례 15일

동참금 | 370만원
일 정 | 인천–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보팔–산치대탑–아그라–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케사리야–바이샬리–나란다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사르나트–델리–인천
▶10월 17일 출발~10월 31일 도착(15일 일정)
▶12월 26일 출발~01월 09일 도착(15일 일정)
▶01월 16일 출발~01월 30일 도착(15일 일정)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